

마이다스(신념)

시작은 작은 씨앗이 불을 과하였다
그 씨앗이 싹터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고
희망한 숲은 이루어졌다
이 숲은 푸른 산이 되고 큰 산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산에서 인재를 들을 창하게 자라 못되우고
풍성한 결실신으로 행복과 위상을 알뜰하며
맑은 공기과 길고 넓은 그늘로
나눔의 보물을 펼칠 것이다

보이는 삶은 우한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한한 힘이다

마이다스(신념)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영예를 소중히 여기는
희생의 행복을 위한 참된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는다

이형우 시권상호사



살이랑

살이랑

세상을 통해 나를 배우고

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며

그렇게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 旅程이다

살이랑

나를 넓혀가는 과정 過程이다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세상으로 나를 넓혀간다

살이랑

이기권근에서 이타利他로 가는 덕程 德程이다

나의 이기에서 우리를 위한 가치로

세상을 향한 이타로 사랑을 키워간다

살이랑

나음을 밝혀가는 도정 道程이다

주관에서 객관으로 객관에서 이치로 밝혀간다

이형우시현상호시



일일이각

일일은
자신과 세상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며
자신을 세상의 세기는 능욕할 실천이다

일일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세상을 향한 순결한 의지이며
자연으로부터 받은 능욕함
세상으로 환원하는 아름다운 행위이다

일일은
수강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고
욕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이며
고통이 아니라 참만한 기쁨이다

일일은
나날의 선행과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하는 원칙으로
현재의 불행은 미래의 현실로 만드는데
영스런 도원이다

일일은
행복의 원천이고
보람의 실천이며
나눔으로 완성된다

기술을 자외 기술

기술을 자란

자신의 권을 밖 기술을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을 자는

정체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자이고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열어가는데 열망자이며
현재를 보아 앞서 미래를 지향하는 선구자입니다

삶의 이치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는 철학자이고
민중의 현상을 연구하고 구명하는 과학자이며
항의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을 자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변모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주역입니다

이형우 시현상호서

